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봄과 가을철에만 식수를 하던 종전의 방법에서 벗어나 땅의 의도대로 사철 나무를 심자고 해도 그렇고 나무의 사름물을 결정적으로 높이자고 해도 양묘장을 현대화, 과학화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자 처리, 싹틔우기, 영양관리, 생태환경 보장, 병해충구제, 저장 등에 이르는 모든 나무모생산공정들을 고도로 현대화함으로써 122호양묘장을 적은 생산면적과 로력을 가지고 한해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토지 절약형, 로력절약형 양묘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나라의 산림과학을 선도할수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보급거점,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주는 양묘장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양묘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를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현지에서 직접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립제전을 벌려 122호양묘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양묘장으로 보란듯이 전변시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일감을 스스로 찾아안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보람이고 긍지이며 행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묘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이 지구가 6개월후면 전지가 벽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또 하나의 귀중한 재

부를 창조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끝없이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